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2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9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선제 결승 골을 터뜨린 뒤 자축하고 있다. 손흥민은 시즌 득점 수를 9골로 늘리며 EPL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다. /연합뉴스

그에게로 가면 골이 된다 '킬러 본색' 손흥민 9호골

코로나19의 위협을 이겨낸 손흥민(토트넘)이 정규리그 9호골을 터뜨리고 득점 랭킹 단독 선두로 나섰다.

손흥민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9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쏴 토트넘의 2-0 승리에 앞장섰다.

이 골로 손흥민은 시즌 득점 수를 9골로 늘려 EPL 득점 랭킹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공동 2위(8골)인 도미닉 칼버트-르윈(에버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제이미 바디(레스터 시티)를 1골 차로 앞서 나갔다.

스카이스포츠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1차례 유효 슈팅 가운데 9골을 몰아치는 정교함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까지 올 시즌 공식전에서 시즌 11골(5도움)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버리전 득점 이후 손흥민이 한 달여

5분만에 결승골... 득점 단독 선두
토트넘, 맨시티에 2-0 완승
올 시즌 11차례 유효 슈팅 중 9골

만에 넣은 골이기도 하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개인 통산 6골을 몰아치며 '맨시티 킬러'임을 증명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제이미 바디(9골·레스터 시티) 한 명뿐이다.

무엇보다, 그가 대표팀 내 코로나19 확산을 가가스로 피하고 소속팀으로 복귀한 뒤 가진 첫 경기에서 '무사히' 골을 넣어 팬과 한국 축구계를 크게 안도하게 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5분 만에 전광석화 같은 상대 뒷공간 침투로 골

망을 흔들었다.

방귀 은둔벨레가 수비라인을 넘기는 로빙 패스를 넘겨주자 손흥민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한 번 드리블한 뒤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왼발 땅볼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다.

후반 20분 지오바니 로셀소의 추가골 상황에서 손흥민은 득점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파고들면서 왼쪽에 빈 곳이 생겼고, 여기를 파고든 로셀소가 케인의 패스를 받아 골지역 왼쪽에서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케인은 리그에서 시즌 9호 도움을 올려 이 부문 단독 선두를 더욱 굳혔다. 2위 잭 그릴리시(5개·애스턴 빌라)와 격차를 4개로 벌렸다.

이날 승리로 6승 2무 1패가 된 토트넘은 승점 20점을 쌓아 나란히 9경기를 소화한 첼시(승점 18)를 제치고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다만, 승점 18점인 3위 레스터 시티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다. 토트넘은 리그 4연승, 8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VAR에 운 전남... '3골 취소'로 준PO행 좌절

서울이랜드와 1-1...6위로 마감

전남드래곤즈의 4강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전남은 지난 21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2020 K리그2 27라운드 최종전에서 1-1,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4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5위 전남은 이날 무승부로 내년 시즌 승격 도전을 기약하게 됐다.

무승부 '경우의 수'를 남겨뒀던 서울이랜드는 6위에 있던 경남FC가 이날 3위 대전하나시티즌을 1-0으로 꺾으면서 5위로 밀렸다.

전남은 전반 4분 이후권의 헤더로 서울이랜드의 골망을 열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노골'이 선언됐다. 공격의 시작점이었던 울렉의 크로스가 엔드라인을 넘어가면서 골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이랜드의 거친 공세를 이겨낸 전남이 전반 33분 이번에는 진짜 '골맛'을 봤다.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김주원이 상대 수비수 사이에서 공을 지키며 중앙에 있던 줄리안에게 패스를 했다.

줄리안은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하지만 전남은 전반 추가시간 서울이랜드 레안드로에게 골을 내주면서 1-1로 전반을 마감했다.

후반전 전남이 두 차례 골망을 흔들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후반 25분 울렉의 크로스를 받은 줄리안이 헤더로 마무리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후반 추가시간 6분 이번에는 줄리안이 슬라이딩



전남드래곤즈의 추정호(오른쪽)가 21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2020 K리그2 최종전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을 하며 필사적으로 골대를 뚫었다. 2020 시즌 마무리를 알리는 '극장골'이 되는 것 같았지만 주심은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다.

승점 38점이 된 전남은 마지막날 승점 3점을 챙긴 경남(승점 39·득점 40), 대전(승점 39·득점 36), 서울이랜드(승점 39·득점 33)에 이어 6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전남은 올 시즌 가장 많은 14차례 무승부를 기록하며 '지치 않는 싸움'은 했지만 4강 고지까지 승점

이 부족했다.

1부리그행 티켓을 향한 K리그2의 '승격플레이오프'는 25일 시작된다.

시즌 최종전에서 만났던 경남과 대전이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에서 다시 만나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준PO의 승자는 29일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으로 가 2위 수원FC와 단판승부로 승격 티켓 주인 공을 가리게 된다. /김여운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수영 첫 세계 신기록 보유자 나온다

자유형 200m 주니어新 황선우 부라부라 도핑 검사...공인 절차 진행

한국 수영이 우여곡절 끝에 시니어와 주니어를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세계 신기록 보유자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새 역사의 주인공은 고교 2학년생인 황선우(17·서울체고·사진)다.

황선우는 지난 19일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9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박태환이 2010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세운 한국 기록 1분44초80에 1초12 뒤진 좋은 기록이다. 무엇보다 황선우의 기록은 세계주니어신기록이다.

엘리아 워닝턴(호주·20)이 18세였던 2018년 12월 맥도널드 퀸즐랜드 챔피언십에서 작성한 종전 기록(1분46초13)을 0.21초 단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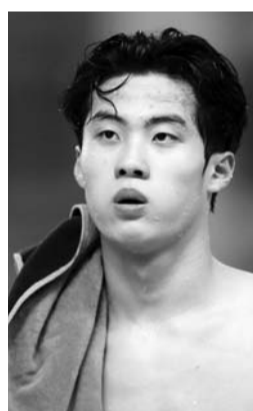
국제수영연맹(FINA)은 유망주의 동기 부여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만 18세 이하의 남녀 수영 선수들을 대상으로 세계주니어 기록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니어는 물론 주니어 부문에서도 FINA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마터면 황선우의 기록은 FINA 공인을 받지 못할 뻔했다.

세계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을 공인받으려면 기록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도핑 테스트 음성 결과 확인서를 첨부한 공인 요청서를 해당 선수의 국가연맹이 FINA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당일 황선우는 도핑 테스트를 받지 못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도핑 검사관이 배치



되지 않았다.

다만, 천만다행으로 FINA가 신기록 수립 시점부터 24시간 내 시행한 도핑 테스트 결과를 요구해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20일 오전 부라부라 KADA에 황선우에 대한 도핑 테스트를 의뢰했다. 결국 이날 오후 3시가 넘어 도착한 검사관들이 공인에 필요한 유효 시간을 두 시간 가량 남겨놓고 황선우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대한수영연맹은 황선우의 도핑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대로 FINA 공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수영연맹의 요청서를 검토 후 FINA가 비준하면 황선우는 우리나라 수영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주니어기록 보유자가 된다.

현재 평영과 개인혼영 등 일부 종목에 일본, 중국 선수들이 세계주니어기록을 갖고 있으나 자유형 종목에는 남녀를 통틀어 아시아 선수는 한 명도 없다.

황선우는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저 혼자만의 목표였던 세계주니어기록을 경신하는 결과를 얻어 너무 좋다"며 "주니어 기록에 이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1년 더 남았으니 다시 경신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방체육회 법인화...재정 안정 토대 마련

운영비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를 아우르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법

률안 중 5개 항목이 개정됐다.

▲제2조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를 신설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등이다.

특히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체육회 등 전국 체육회가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해야 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3관	내가 죽던 날
4관	도굴
5관	도굴,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마리 퀴리
6관	도굴, 런
9관	런
7관 씨네카를	런, 나이스 걸 라이크 유, 봉쇄수도원 카르투시, 담보
8관 씨네카를	텍스 콜렉터,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김덕 오프 헤븐, 디렉터스 컷,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 30(월) ~ 12. 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